

비즈 프리즘 | 이통사 요금경쟁 2라운드

KT 2만원대 1GB 요금제...사실상 보편요금제

(25% 선택약정할인시)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 선배 해외 로밍통화로 분당→초당 변경 SK텔레콤도 새로운 요금제 준비



KT가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데이터 용량과 속도에 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 등을 내놓으며 요금 경쟁에 불을 지폈다. 3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새 요금제를 설명하고 있는 KT 유무선사업본부 박현진 상무. 사진제공 | KT

KT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월 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내놨다. 주요 내용만 보면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경쟁사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KT는 데이터 혜택을 늘린 LTE요금제를 30일 출시했다. 먼저 다양한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데이터ON 특·비디오·프리미엄' 3종으로 데이터 무제한(일부 속도제한)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요금제처럼 유무선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 제공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4만원대 요금제인 데이터ON 특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웹서핑 등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

을 타깃으로 한 요금제로 월4만9000원(약정시 3만6750원)에 기본 데이터 3GB를 제공한다. 3GB를 초과하면 최대 속도가 1Mbps로 제한된다. 데이터ON 비디오는 월6만9000원(약정시 5만1750원)에 매월 100GB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면 최대 5Mbps 속도로 제한한다. 데이터ON 프리미엄의 경우 월 8만9000원(약정시 6만6750원)에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내놓은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KT는 이와 함께 저가 요금 이용자를 위한 'LTE베이직' 요금제도 내놨다. 월3만3000원에 1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경우 월 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정부가 입법추

진 중인 보편요금제(월2만원대에 1GB·음성200분 제공)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음성통화가 기본 제공돼 혜택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KT는 또 해외 로밍 통화요금을 분당 과금에서 초당 과금으로 바꿨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에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1초당 1.98원의 요금을 적용했다.

KT가 새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올 초부터 잇따라 위약금 제도를 손보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온 경쟁 이동통신사들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사다.

실제로 SK텔레콤은 현재 새로운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만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30일

코스피지수	2409.03	↓	-48.22
코스닥지수	874.22	↑	+4.14
日 닛케이 지수	2만2018.52	↓	-339.91
中 상하이 종합	3041.44	↓	-79.0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9		0
환율 (원·달러)	1079.00	↓	-1.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5048.61	↓	-225.75

대법원 "비트코인도 재산" 범죄 수익 암호화폐 몰수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입금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보육시설 확충, 취업박람회까지...금융권 '통 큰 사회공헌'

'포용적 금융'...채용비리 이미지 쇄신

금융권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통 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하는 금융 패러다임이다. 서민 및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자는 취지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권은 먼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투자

를 약속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 체계 발전에 2022년까지 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하나금융그룹도 2020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에 3년 간 24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활동에도 나선다. KB국민은행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사진)'를 앞으로 연 1회에서 5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SK그룹과 3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8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일자리 창출지원, 혁신기업 투자를 골자로 하는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우리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위비핀테크랩'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이면에는 채용비리 논란으로 쏟아진 여론

회(사진)를 앞으로 연 1회에서 5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SK그룹과 3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8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일자리 창출지원, 혁신기업 투자를 골자로 하는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우리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위비핀테크랩'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이면에는 채용비리 논란으로 쏟아진 여론



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의 성격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분기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내면서도 사회공헌활동은 줄었다는 비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퍼시스 '스튜디오 원' 통해 "2021년 매출 5000억 달성"

IT기술 결합 제품 개발·인재육성 강화

사무가구 업체 퍼시스가 그룹 통합연구소 '스튜디오 원'을 통해 2021년까지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기연 퍼시스 부사장은 30일 서울 송파

구 오금동 본사에서 열린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 2018' 기자간담회에서 "스튜디오 원'은 가구연구소를 통합 확대한 혁신 공간"이라며 "사람과 공간을 위한 창조적인 솔루션을 찾아 일류 가구연구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IT기술을 결합한 제품 개발 등 기술 및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육성 및 산학협력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독자적이고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퍼시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25% 성장한 289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윤 부사장은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고 2021년까지 50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무가구 리딩 업체에 안주하지 않

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퍼시스 '스튜디오 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 | 퍼시스

고 혁신의 자세로 고객 중심의 가치를 제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대한민국 명품교육 No.1 에듀윌

교육·퍼즐

에듀윌

전문 교수진의 노하우가 담긴 베스트셀러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광광고쿼츠.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교재 선택 기준... '합격 가능성'에 맞춰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수험서 선택의 기준을 물으면 가장 많이 답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효율성'이다. 학습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콘텐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내용과 구성만큼 중요한 것 없다.

그렇다면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교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용부터 구성까지 많은 합격생들의 학습 패턴을 반영해 '합격'에 최적화된 교재가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터다.

이는 정년없는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각광받는 주택관리사 시험 교재에도 물론 해당된다. 특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학습이 결코 쉽지 않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교재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상대평가 전환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그 전까지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기에 더욱 합격 가능성이 높은 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기본서부터 기출문제집,



관리사 부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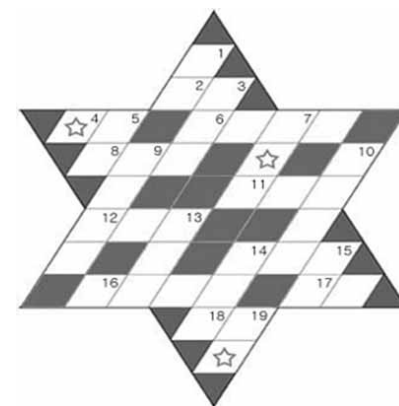
에듀윌의 수험서는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보유한 출제위원급 전문 교수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돼 인기를 끌고 있다. 전공자가 아니라면 어려움을 느낄만한 법, 회계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초보 수험생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것은 물론이다.

에듀윌 출판사업본부 남영택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합격 바이블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핵심요약집, 실전모의고사 등 다양한 주택관리사 교재를 출간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 여자가 화장할 때 입술·뺨에 바르는 홍색 안료.
04. 사면이 육지로 싸이고 땅이 우

묵하게 들어가 물이 끈 곳.
06. 뚝배기에 분쟁이 일어남의 비유. "오지오파"
08.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고래를 잡는 데 쓰는 배.
11. 서투르고 미숙한 무당.
12. 조선 때,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낸던 사신.
14. 피곤을 떨기 위해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짓.
16.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혹오무오"
17.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헤매
18. 목적을 이룸.

■ 세로 열쇠

01. 담배를 끊음.
03. 전망이 트인 곳에서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
05. 공들인 일이 헛되게 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7. 바람을 받아서 가는 큰 돛단배.

'오범오' 09.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오천오지"
10. 뒷사람이나 반가운 사람이 올 때에 마당으로 내려와서 맞음. "하오영오"
13. 남의 집이나 방(房)을 빌려 살면서 다달이 내는 세.
14. 동작이 아주 날쌔고 눈치가 빠른 성질.
15. 출입이나 교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가함.
19. 절구나 돌확에 든 물건을 찌거나 찌는 기구.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서 놓으면 여러 분이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 이름이 됩니다.

